

구이임



집은 집이 아니다



1장 house O, home X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 철벽의 요새 / 하느님 부처님 천지님

구, 이, 임의 집.

오롯이 혼자만의 안전한 공간.

부유

마주한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인가.
햇살이 비친 창가에 떠다니는 먼지 한 톨, 떠다니는 한 조각 안에 담긴 우주.
찰나의 순간과 쾌락 그 언저리를 떠돌고 있다.

구석탱이

빈틈없이, 조금도 남김없이 한껏 끼어있을 때 안정을 느낀다.
구석으로. 더욱더 구석으로. 구석탱이에 박히기.

무서운 시간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재촉한다.
이 순간 이 행위가 과연 우리의 의지에 의한 것이 맞을까.

꿈속의 아우성

잠이 들면 아득히 먼 곳 혹은 무척 가까운 벽 넘어 비명소리가 들린다.
저곳이 우리의 첫 번째 집이다.
누구의 비명인가. 무엇이 이 집을 휘방 놓았는가.



십이난간

시창 ‘십이난간(十二欄干)’은 유유자적한 경포대의 풍경을 노래하는 한시이다. 시와 대조적으로 역동적인 선율로 표현한다. 평온해 보이지만 내적 갈등을 겪는 우리의 모습을 담아 잔잔한 호수의 표면 아래 요동치는 물결을 상상해 보았다.

나의 바다

심화하는 아픔과 우울의 변화를 바다에 담아 이야기한다. 아른거리는 희망에 사로 잡혀 갈피를 잃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다양한 우울이 모든 물의 종착지인 바다를 만나 이어진다. 이 바다는 나의 바다인가 너의 바다인가 우리의 바다인가.

나비

기계로 만들어진 회색 나비. 나비에서 ‘비’는 ‘때’의 옛말로 ‘나의 때’를 의미한다. 고장 난 시계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쇠조각은 한 조각 나비가 되어 헤맨다. ‘채접쌍쌍탐춘광(彩蝶雙雙探春光)’ 기억 속 나비는 색채를 입고 봄빛을 탐한다.

돌을 던진 자 누구인가

‘나’에게 묻는다. 상처 입은 자, 상처 입힌 자는 누구인가. 보편의 이름 아래 정의는 무엇인가.



집은 집이 아니다

집을 찾아 집을 나셨다.
발을 내디딘 순간 각자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집이다.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빛

‘연하(煙霞)에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 허물없이 살아가고 싶은 소망을 담아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을 그리듯 노래한다.

풍경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다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자각하고 그리워한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상상이기에 더 아련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며,